

고교 기독교 동아리 학생의 7%, ‘동아리 활동으로 기독교 믿게 됐다’!

목회자들에게 현재 교회의 가장 어려운 점을 꼽으라 하면 빠지지 않고 상위권에 드는 것이 ‘다음세대’ 문제이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학령인구의 절대적 수가 줄어들고, 교회학교 학생 수는 그보다 1.3배 더 빨리 감소하여 10년 후에는 30%, 20년 후에는 5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 감소율보다 더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한국교회 다음세대. 이렇듯 다음세대 감소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국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다.

다음세대 확장과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그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신앙생활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현재 교내 기독교 동아리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기독교 동아리에 대한 데이터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학원선교단체 ‘더작은재단’(대표 오승환)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기독교 동아리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신앙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독교 동아리가 얼마나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알아봄으로써 기독교 동아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집중시키고, 궁극적으로 다음세대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한 조사 프로젝트이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 동아리 활동 학생 중 7%가 ‘동아리 활동으로 기독교를 믿게 됐다’고 응답했는데, 평균 동아리원 수가 15.9명인 것에 대입해보면 기독교 동아리 한 곳에서 한 명은 새로 신앙을 가지게 되는 셈이다. 다음세대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고무적인 숫자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제165호>에서는 본 조사 결과를 다루고자 한다. 다음세대 확장을 위해서는 다음세대가 있는 곳으로 교회가 찾아가야 한다. 한국교회가 학교 내 교회라 할 수 있는 ‘기독교 동아리’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 연계 및 지원을 통해 다음세대 확장과 성장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해본다.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희망친구 기아대책 「한국교회 트렌드 2023」 210p.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기독동아리 실태 조사

본 조사는 한국교회의 큰 고민 중 하나인 ‘다음세대’의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학교 안 신앙 생활의 통로이자 지표인 ‘기독 동아리’ 운영 실태 및 영향도 등을 조사·파악하여 교내 신앙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코자 진행되었다.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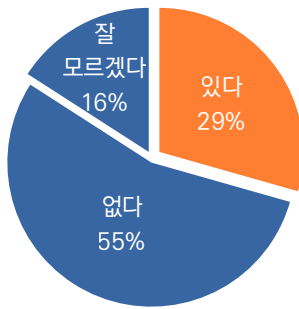
구분	교사 대상 조사	학생 대상 조사
• 조사 대상	전국 고등학교 교사	전국 기독동아리 활동 중인 고등학생
• 조사 방법	리스트(좋은교사운동 소속교사)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조사	리스트(좋은교사운동 소속교사의 소개 학생)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조사 및 스노우볼링을 통한 모바일 조사
• 표본 규모	총 320명 (유효 표본)	총 126명 (유효 표본)
• 표본 추출	편의추출 (Convenience Sampling)	
•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 조사 기간	2022년 7월 1일 ~ 7월 20일	
• 조사 의뢰 기관	(재)더작은재단	
• 조사 협력 기관	(사)좋은교사운동	
• 조사 수행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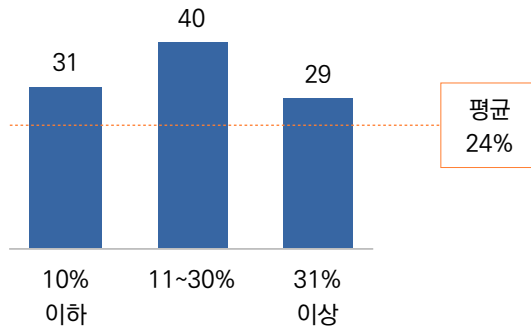
전국 고등학교 4곳 중 1곳, '기독동아리' 있을 것으로 예상!

- ▶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현재 근무하는 학교에 기독동아리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29%가 '있다'고 응답했다. 본인의 근무 학교 외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기독동아리가 얼마나 있을 것 같은 지에 대한 질문에는 약 24% 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 두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국 고등학교 4곳 중 1곳 정도에 기독동아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4곳 중 3곳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신앙 친구들과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현 근무 학교 기독동아리 유무 (교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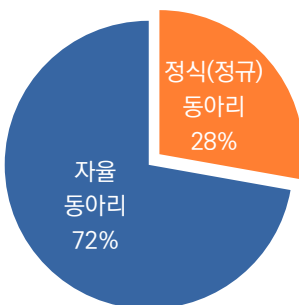
[그림] 전국 고등학교의 기독동아리 비율 예상 (교사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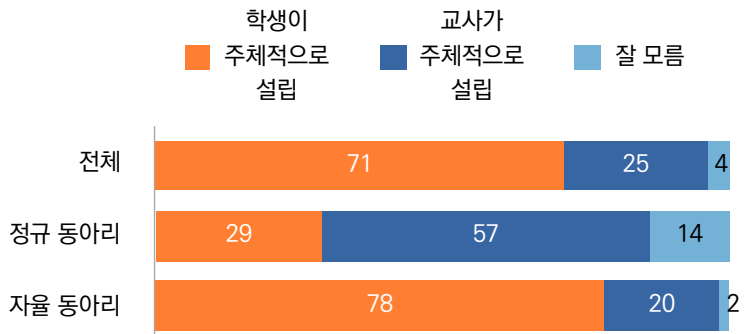
◎ 기독동아리 10곳 중 7곳(71%), '학생이 주체'가 되어 만들었다!

- ▶ 현재 기독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동아리 형태를 물은 결과, 72%가 '자율 동아리'라고 응답했다. 즉, 다수의 기독동아리는 정규 교육과정에 속해 있기보다는 수업 시간 외에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특히 '자율 동아리'(78%)가 '정규 동아리'(29%)에 비해 '학생이 주체적으로 설립'한 비율이 2.7배 가량 월등히 높았다. 교내에서 신앙생활을 갈망하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율 동아리를 설립해 신앙 활동을 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림] 활동하고 있는 기독동아리 형태 (학생 대상)



[그림] 기독동아리 설립 주체 (재학 중 기독동아리 설립된 학생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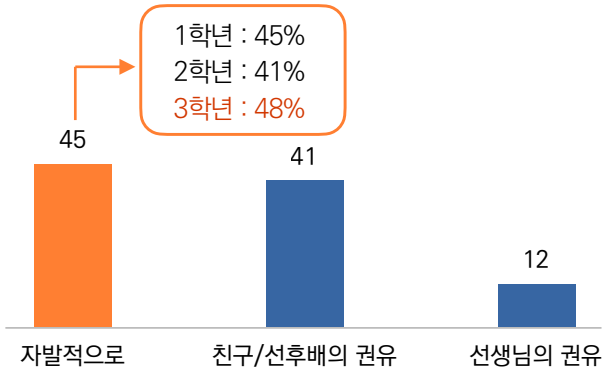
*정식(정규) 동아리 : 학교 수업 시간 내에 편성된 동아리. 정규 교육과정 내 동아리.
자율 동아리 : 수업 시간 외에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동아리. 학교계획에 의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동아리.

02

기독교 동아리 학생의 절반 가량(45%), '자발적으로' 동아리 활동 시작!

- ▶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의 절반 가까이는 '자발적으로'(45%) 동아리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친구/선후배의 권유' 41%, '선생님의 권유' 12% 순으로 응답했다.
- ▶ 특히, '자발적으로'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시작한 비율은 고등학교 '3학년'에서 가장 높은 점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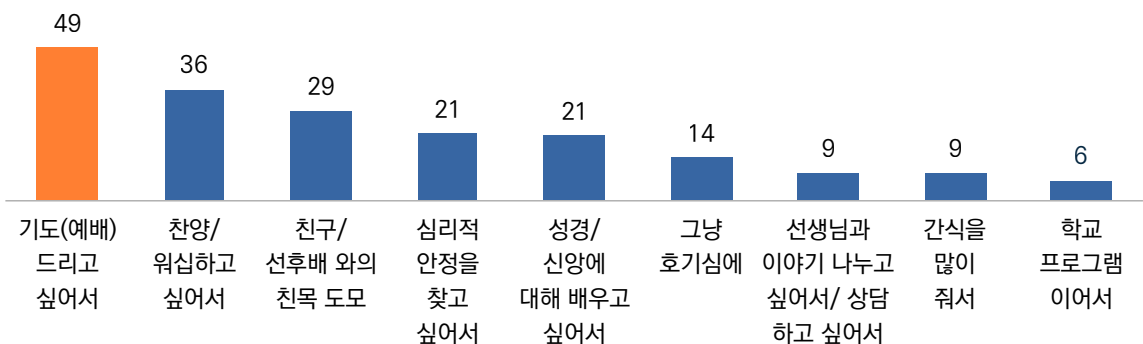
[그림] 동아리 활동 계기 (학생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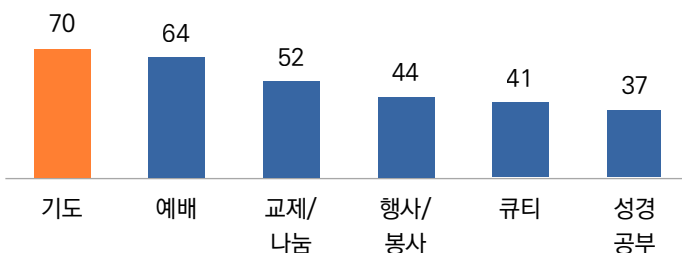
◎ 기독교 동아리 활동 이유, '기도'와 '예배'에 대한 갈급함(49%)이 가장 커!

- ▶ 학생들이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하는 이유는 '기도(예배) 드리고 싶어서'가 49%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찬양/위십하고 싶어서' 36%, '친구/선후배와의 친목 도모' 29%, '심리적 안정' 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친목'이나 '심리적 이유'보다 '신앙'이 주된 이유로 나타난 것이 주목된다.
- ▶ 실제로 기독교 동아리에서 하는 활동도 '기도'(70%)와 '예배'(64%)가 주가 되고 있었다. 신앙을 가진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기도·예배 등 영적 생활에 대한 니즈를 크게 느끼고 있으며, 기독교 동아리가 그 니즈를 해결해주는 창구가 되고 있다.

[그림] 기독교 동아리 참여 이유 (학생 대상, 1+2순위, %)



[그림] 기독교 동아리에서 하는 활동 (학생 대상,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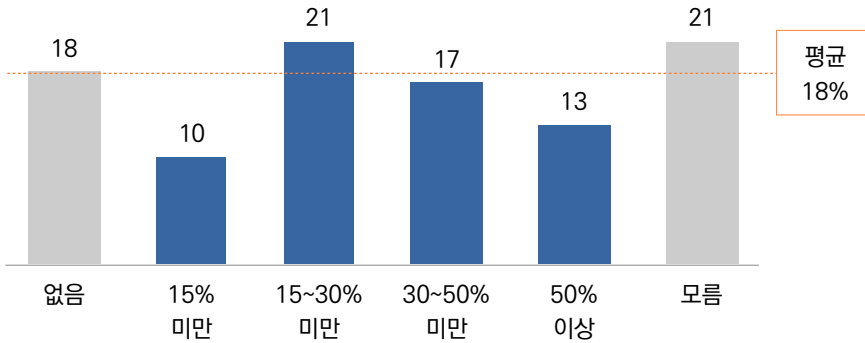


03

기독동아리 소속 학생의 18%,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 기독동아리 학생 구성을 살펴보면, 동아리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약 18%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 학생으로 구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 기독동아리가 기독교 학생만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다수의 기독동아리가 교회에 미출석하는 가나안 학생 혹은 심리적 안정, 호기심 등의 이유를 가지고 동아리에 참여하는 비기독교인 학생을 포함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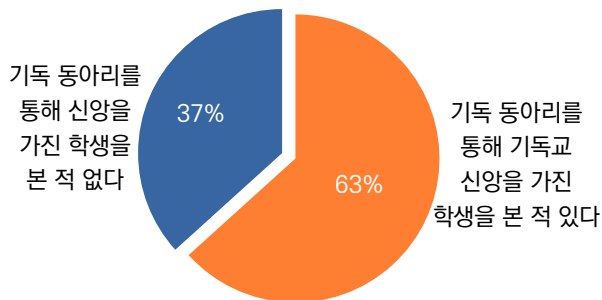
[그림] 교회 안나가는 동아리원 비율 (학생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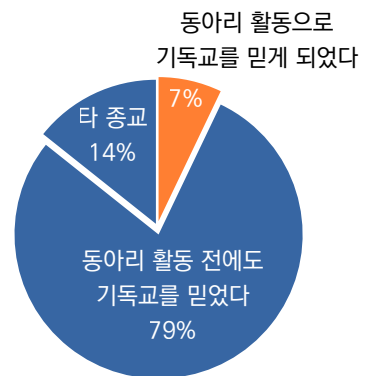
◎ 학생 7%, '기독동아리 활동으로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

- 기독동아리 담당 경험이 있는 교사 중 63%는 '기독동아리를 통해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학생을 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기독동아리 학생의 종교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동아리 활동 전부터 기독교인이었지만, '기독동아리 활동으로 기독교를 믿게 된' 학생도 7%에 달했다.
- 다음세대의 교회 이탈이 증가하고, 다음세대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7%는 적지 않은 숫자로, 기독동아리 활동이 믿음을 갖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기독동아리를 통해 신앙 가진 학생 경험률 (현 기독동아리 담당 or 과거 담당 경험 교사 대상)



[그림] 기독동아리 활동 학생 종교 (학생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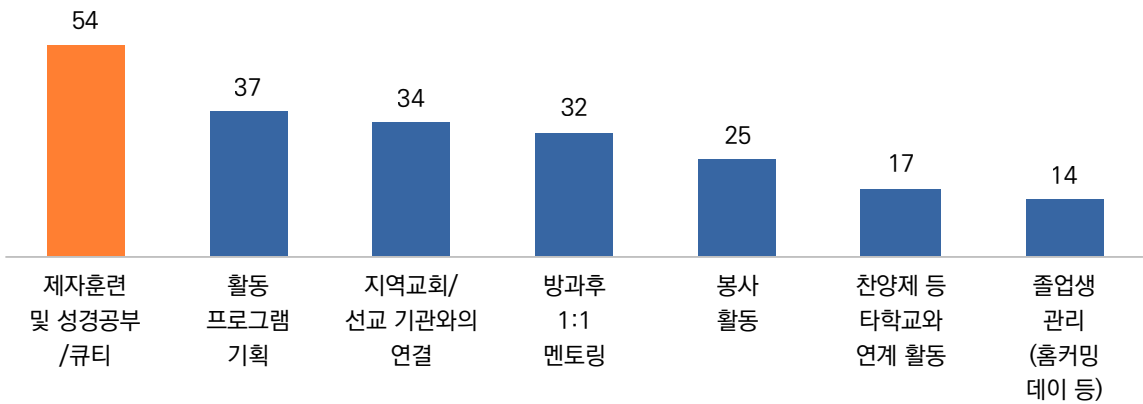


04

기독교동아리 담당 교사, 동아리 활성화 위해 '제자훈련 및 성경공부'(54%) 했다!

- ▶ 현재 기독교동아리를 담당하거나 과거 담당했던 경험이 있는 교사 대상으로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것을 물었는데 54%가 '제자훈련 및 성경공부/큐티'를 했다고 응답했으며, '활동 프로그램 기획'(37%), '지역교회/선교 기관과 연결'(34%), '방과후 1:1 멘토링'(32%) 등의 순으로 응답됐다. 대부분의 기독교동아리 담당 교사가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강구했음을 보여준다.
- ▶ 45세 이상 교사는 '제자훈련 및 성경공부/큐티', '활동 프로그램 기획', '지역교회/선교 기관과의 연결' 등의 활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한 반면, 35세 미만 교사는 '방과후 1:1 멘토링'과 '봉사활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45세 이상 교사는 '신앙 연계 활동'에, 35세 미만 교사는 '신앙 활동 외 학생과의 관계 등'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림]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노력(현 기독교동아리 담당 or 과거 담당 경험 교사 대상, 중복응답, 상위 7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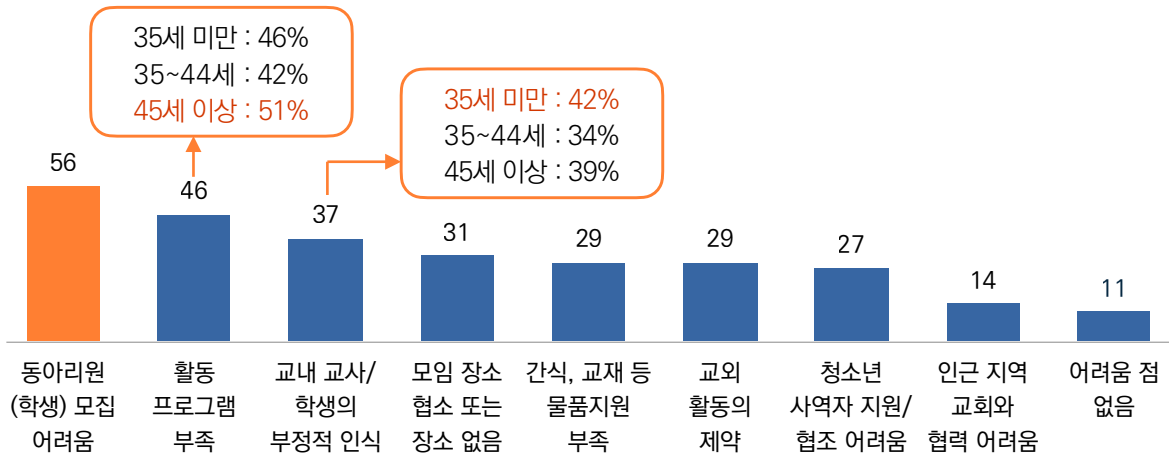
[표]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노력(현 기독교동아리 담당 or 과거 담당 경험 교사 대상, 연령별, 중복응답, 상위 7위, %)

연령	제자훈련 및 성경공부/큐티	활동 프로그램 기획	지역교회/선교 기관과의 연결	방과후 1:1 멘토링	봉사활동	찬양제 등 타학교와 연계 활동	졸업생 관리 (홈커밍 데이 등)
35세 미만	46	31	27	50	31	8	4
35~44세	53	36	34	31	24	19	18
45세 이상	59	41	37	24	22	20	16

◎ 기독동아리 담당 지도의 가장 어려운 점, 절반 이상(56%) '동아리원 모집'을 꼽아

- ▶ 동아리 담당 지도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동아리원 모집'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이 꼽혔다(56%). 그 다음으로는 '활동 프로그램 부족', '교내의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는데, 동아리원이나 프로그램 등 내부 요인 외에 '부정적 인식'이라는 외부 요인이 어려운 점 상위에 있어 주목된다.
- ▶ 연령이 높을수록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꼽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교내의 부정적 인식'을 많이 꼽은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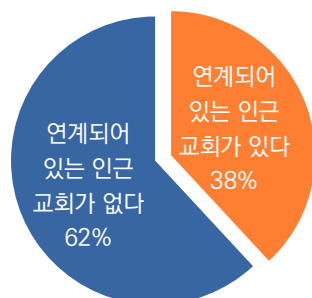
[그림] 기독동아리 담당 지도의 어려운 점 (현 기독동아리 담당 or 과거 담당 경험 교사 대상, 1~3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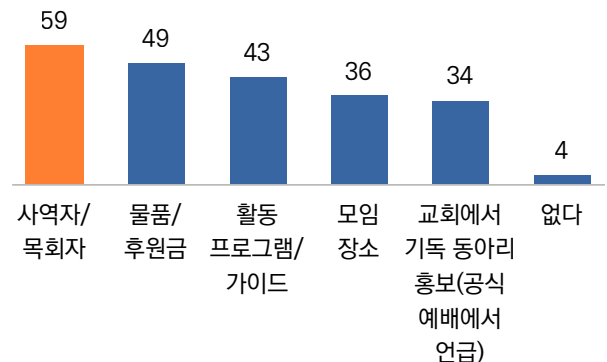
05 기독동아리 10곳 중 4곳만, 지역교회와 연계되어 있다!

- ▶ 기독동아리 중 지역사회 교회와 연계되어 있는 비율은 38%로, 10곳 중 4곳 정도만이 연계 교회가 있었다. 연계 교회에서 지원받는 항목은 '사역자/목회자' 지원 59%, '물품/후원금' 49%, '활동 프로그램/가이드' 43%, '모임 장소' 36%, '기독 동아리 홍보' 34% 등이었다.
- ▶ 앞서 교사들이 기독 동아리 운영에 있어 '학생 모집'과 '활동 프로그램 부족'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는데, 지역사회 교회에서 공식 예배를 통해 동아리를 언급하고 홍보하는 것이 학생 모집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활동 프로그램이나 가이드 지원도 교사들이 어려워하는 요소를 보완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지역사회 교회와 교내 기독 동아리가 연계되는 비율이 더 늘어난다면 기독 동아리 운영의 애로사항을 줄이고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교회 차원에서도 가나안 학생을 교회로 유인하는 등 청소년부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지역사회 연계 교회 유무 (현 기독동아리 담당 or 과거 담당 경험 교사 대상)



[그림] 연계 교회의 지원 항목 (현 기독동아리 담당 or 과거 담당 경험 교사 대상,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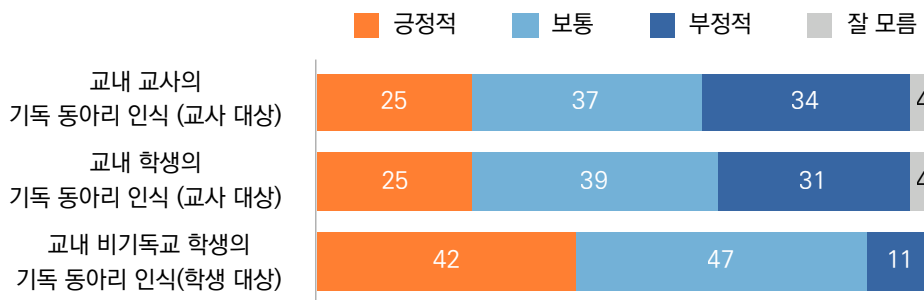


06

기독교동아리에 대한 시선, 학생보다 교사가 더 부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음!

- 교사들이 생각하는 '교내 교사/학생의 기독교동아리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라고 예상하는 비율이 '긍정적' 예상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이 생각하는 '교내 비기독교 학생의 기독교동아리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 42%, '보통' 47%, '부정적' 11%로 긍정적이라고 예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즉, 학생보다 교사가 교내 기독교동아리에 대한 시선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교사가 학생에 비해 교내 시선에 대해 더 민감함을 보여주는 지표로, 실제 학생들이 느끼는 시선은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교사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림] '기독교동아리에 대한 인식' 예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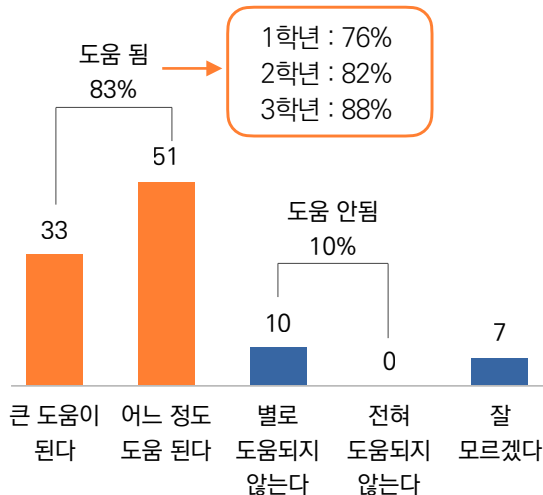
*5점 척도 문항으로 '긍정적(매우+약간)', '부정적(매우+약간)' 비율임.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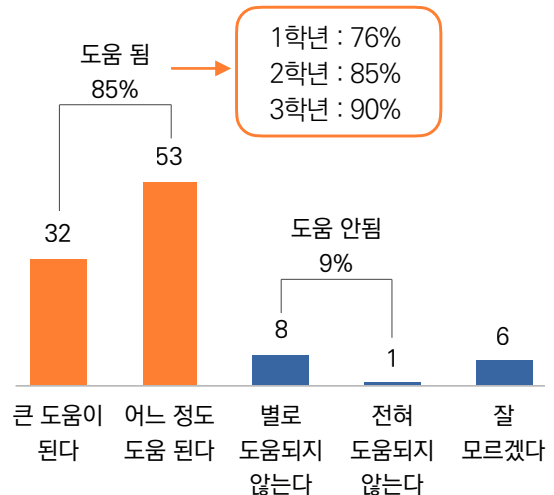
기독교동아리 활동, 신앙뿐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도움 된다!

- 기독교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이 기독교동아리 활동이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신앙뿐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된다'는 비율 역시 85%로 높게 나타났다.
- 특히, 신앙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높아져, 고3 학생들이 기독교동아리의 도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 유의미하다.

[그림] 기독교동아리 활동의 신앙 성장 도움 정도 (학생 대상, %)



[그림] 기독교동아리 활동의 일상생활 도움 정도 (학생 대상, %)



고등학교 교육 목표는 무엇일까? 전인교육?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 일부 소수의 학생 및 학부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 교육은 대학 입시를 목표로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학생 활동도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는 것에 집중하도록 계획을 짜서 실행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의 교육에서 배우거나 체험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 자신의 취향과 관심에 따라서 동아리를 선택하는 것이 동아리 본래의 목적이지만, 대학 입시라는 목표 앞에서는 동아리 활동도 예외없이 학생들의 입시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 등의 ‘수시 전형’으로 대학에 가고 하는 학생들은 이른바 ‘스펙’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동아리를 선택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학생의 ‘스펙’에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동아리를 운영한다. 기독교 동아리는 학생의 스펙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교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 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고등학교 4곳 가운데 1곳에 기독교 동아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는 절대적 수치로 보면 미흡하지만 입시 중심의 고교 교육 체제에서 보면 기독교 동아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4쪽)

기독교 동아리가 있다는 것보다 더 주목할 것은 기독교 동아리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기독교 동아리 4군데 가운데 3군데가 자율 동아리이며, 교사 주도보다는 학생들이 자발적, 주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4쪽) 학생들이 기독교 동아리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이유는 ‘기도(예배) 드리고 싶어서’ 49%, ‘찬양/위십하고 싶어서’ 36% 등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주일 외에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학교 기독교 동아리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이다.(5쪽)

다음 세대 가운데 신앙을 갖지 않은, 신앙에서 벗어나려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학생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굳건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교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결과이다. 어른들이 보기에 다음세대는 어린 것 같지만 복음은 이미 그들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는 어린 것 같지만 복음은 이미 그들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학생 가운데 18%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경위가 어떠한지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하므로 신앙 유지 및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 동아리의 긍정적 역할을 볼 수 있다. 또한 7%는 동아리 활동으로 기독교를 믿게 되었으며 14%는 타 종교를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6쪽) 이 둘을 합한 21%는 기독교 동아리를 통한 선교적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대학에는 CCC 등 여러 대학생 선교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나, 고등학교에는 선교단체가 없는 상황에서 비체계적이고 비조직적인 기독교 동아리가 선교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를 통한 고등학생 전도를 보완할 수 있는 통로로 기독교 동아리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기독교 동아리 가운데 인근 교회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는 38%, 연계된 교회가 없는 경우가 62%로 많은 동아리가 지역 교회 도움없이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인근 교회와 연계된 기독교 동아리를 보면 교회로부터 목회자 지원(59%), 물품/후원금 지원(49%), 활동 프로그램 지원(43%), 모임 장소 지원(36%)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았다.(9쪽) 인근 교회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기독교 동아리에게 조금만 지원해 준다면 이들이 힘을 얻어 기독교 동아리가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지역교회와 연계된 비율이 38%에 그치고 있어, 교회가 고교 기독교 동아리에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기를 권고한다. 교회는 인근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있는지 파악하여 이들을 지원하거나, 교회 출석하고 있는 학생에게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도록 권유할 수 있다. 지역 교회의 이러한 노력은 다음 세대에 대한 선교적 노력이 개 교회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학교 차원으로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1) 교회학교와 관련해서 넘버즈 55호, 95호, 96호, 101호, 102호, 143호 참조할 것